

도시지역 주부들의 결핵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중앙의학 50권 제2호, pp. 141~152 1986.

고영애 · 왕명자

그간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사회환경의 부단한 개선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결핵문제가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병율 2.5%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남아있다. 결핵치료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항 결핵제를 중단없이 복용하는 것이나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수의 등록치료환자들이 치료되기 전에 단절하는 일이 많아 결핵관리의 문제점으로 되었다. 장기적 만성질환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가족의 협력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결핵은 그 대표적인 질환이다. 가족원 중에서 가족보건문제의 주요 의사결정자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주부들에 대한 보건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1984년 4월30일부터 5월23일까지 서대문과 마포지역 218가정을 방문하여 주부들의 결핵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에 대해서는 주부들의 78.90%가 알고 있었으며 지식 획득경로는 학교교육 45.35%, 이웃 및 친구 25.59%, TV 20.35% 순이었다.

2. 77.46%가 결핵을 전염성으로 알고 있었으며 22.54%는 유전으로 알고 있었다. 연령, 활동상태, 가족결핵결과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학력과는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P < 0.01$).

3. 결핵증상은 80.09%가 알고 있었으며 연령, 교육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나타났으나 가족의 결핵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5$) 이들이 알고 있는 증상은 기침 84.39%, 객혈 80.92%, 객담 57.28% 순이었다.

4. 결핵 검진법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X-ray로 64.22%였다.

5. 77.42%가 B. C. G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연령, 활동상태별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 ($P < 0.05$), 가족 결핵력과 ($P < 0.05$)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6. 결핵은 폐에서만 발병한다고 보는 이들은 67.29%였으며 32.71%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병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활동상태와 무관하였으나 교육정도 ($P < 0.05$), 가족 결핵력 ($P < 0.01$)과는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7. 결핵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규칙적인 투약이라고 생각하는 주부들은 52.76%로서 연령, 교육정도, 활동상태, 결핵력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8. 66.51%는 자신이 결핵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교육, 연령, 활동상태, 가족 결핵력과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31.49% 중 그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현재 건강하기 때문이 60.28%였다.

9. 결핵검진을 위한 X-ray는 결핵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찍어야 한다가 42.59%, 정기적으로 찍어야 한다 42.13%, 활동상태, 가족 결핵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연령($P < 0.01$), 교육정도($P < 0.01$)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기적 검진을 해야한다는 이들 중 검진 간격으로서는 1년에 1회가 74.72%로 가장 많았다.

10. 결핵 검진 경험은 66.60%가 있었으며 연령, 활동상태 결핵력과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교육과는 유의성($P < 0.001$)이 검증되었다. X-ray 경험자 중 경험시기는 2년이내가 63.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병원 지시 43.75%로, 결핵이 의심스러워 스스로 해 본것 22.22%, 정규 검진 18.06%였다. 검진 장소로는 병원이 70.83%, 보건소 22.22%였다.

11. 91.71%는 결핵은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유의성은 교육정도($P < 0.01$)에서만 검증되었다.

12. 결핵 치료처로서는 병원 61.93%, 보건소 33.95%의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일부지역 영아 기질군의 분포조사

전북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8권, pp. 65~75.

김 명 애

본 조사는 일부지역 영아의 기질군의 분포를 알아보고 기질군에 따라 영아의 형제서열, 밤에 깨는 습관, 산통경험의 유무, 기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 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상은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3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영아 90명이며 영아의 행동 형태를 묘사하는 95개 문항으로된 Carey의 영아기질 조사도구를 번안 보안한 심의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에게 작성케한후 별도 채점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조사는 1981년도에 실시한 본 조사자의 '일부지역 영아의 기질성 경향에 대한 조사'에서 일차로 9개의 기질영역으로 된 영아의 기질성 경향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이에 나타난 평균 점수를 토대로 하여 5개의 기질군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영아의 영역별 산술평균을 이용한 기질군의 분포는 순하다 25.56%, 순한 편이다 41.11%, 까다로운 편이다 22.22%, 느리다 3.33%, 까다롭다 7.78%로 Carey